

20세기초 4칸×4칸 교회의 평면구성 및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

김 기 주

(한국기술교육대 건축학부 부교수)

주제어 : 4칸×4칸 교회건축, 평면구성, 구조형식, 복옥 감리교회, 영천 자천교회

1. 머리말

19세기말 20세기초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우리나라에는 주변국과의 관계속에서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지어졌고, 기존의 건축장인들에 의한 전통건축양식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1885년 4월 미국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의 입국으로부터 비롯한 선교사들의 내한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유입됨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종교와 그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건축공간의 마련은 당시 선교사들과 교인들에게 중요한 일종의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유형의 건물, 즉 기존에는 없었던 기능을 포함하는 건축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로부터 그러한 유형의 건축물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¹⁾과 기존의 건축물을 새로운 용도에 맞추어 변형하는 것²⁾이다. 그

리고 이러한 변형에는 공간의 재해석에 따르는 토착적 공간의 창출도 가능하다. 기독교의 전래와 그에 따른 교회건축의 유형구분과 그 특성에 관해서는 이미 수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³⁾, 이중 기존건축을 변형하되 토착적 공간을 창출한 것으로 소위 ‘ㄱ’자형 교회가 전통과 기독교가 결합되어 나타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유형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또 다른 토착적 공간창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4칸 × 4칸의 교회건축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의 전래과정에서 서양의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평면을 전통 목구조 건물에서 수용하기 위하여 4칸 × 4칸의 평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전통목구조에서는 어려운 4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건물은 일반 전통건축에서의 진입과는 달리 박공면을 주출입구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3) 홍순명 외,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 1991.2

도선봉 외, ‘개화기 한국 개신교회 건축의 형성에 대한 연구’,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16권1호, 1997.6

4) 홍승재 외,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권4호, 1998.12

1) 최초의 서양식 교회건물로 1897년 준공된 정동제일교회를 비롯하여 약현성당(1892) 및 명동성당(1898)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 강화의 성공회성당 및 운수리성당과 서도 중앙교회

2. 4칸 × 4칸 교회건축

현존하고 있는 4칸 × 4칸 교회건축은 2개가 있다. 그 하나는 등록문화재 제42호인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로 1924년 준공당시 동양선교회 강경 전도회관으로 만들어졌으나 한국전쟁 이후 개인에게 매각되고 이후 기독교 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게 됨으로써 현재는 감리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경북 영천에 위치한 경북 문화재자료 제452호인 자천교회는 1903년 준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건물은 일반적인 교회건축이 ‘一’자형으로 장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4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2-1.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

강경지역에서 개신교가 처음 선교를 시작한 교파는 침례교였다. 1896년 2월 폴링 선교사 일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인이었던 지병석씨의 자택(북옥리 136번지)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1914년 일어난 교권파동으로 교세의 침체를 맞이하고 또 1944년 5월에 내려진 교단해체령으로 교회는 폐교되었다.⁵⁾

침례교회에 이어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도 충남 지역의 선교에 나섰고, 보령-부여를 경계로 대치하게 되었다. 결국 두 선교부는 1907년 충남에 대한 선교지역 분할협정을 맺게 되는데, 오늘의 서천·금산·보령의 절반과 논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충남의 10개 군은 감리교의 선교구역이 되었다. 그렇지만 장로교 선교부는 충남지역에까지 선교사업을 펼칠 여력이 없었기에 이곳 강경을 옐라 썩 선교회에 양보하였고⁶⁾, 강경포는 공주 논산과 더불어

5) 허긴, “대한기독교회와 교권파동”, 『복음과 실천』 제 19집, 1996, 571~574쪽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사진 1> 북옥리 감리교회 전경

어 감리교의 선교거점이 될 수 있었다.

선교지역 분할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성결교회(동양선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더라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틈새선교를 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강경에 성결교회가 설립된 것이 1918년이었다. 그해 가을 성서학교를 졸업하고 강경으로 파송된 정달성⁷⁾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현재의 교회건물은 1922년 부임한 이인범⁸⁾ 전도사에 의하여 1923년 시작되어 1924년 9월 21일 헤인스 감리사의 집례로 봉헌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⁹⁾. 다음은 강경 성결교회 건립에 대한 이명직 목사의 기록이다.

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대전충남지역 교회사 연구』, 2004, 39쪽.

7) 정달성은 평안남도 평원인으로서 성결교회 약사에 의하면 1915년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1918년 졸업하였다. 이후 강경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1921년에는 홍산교회의 주임이 되었으며, 1923년에 광주 야록리교회와 남한산성교회 주임이 되고 1924년에 어포리 교회 주임이 되었다가 1927년에는 동양선교회신양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사직되었다고 하였다. (이명직,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4~155쪽).

8) 이인범은 황해도 곡산인으로서 1917년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1920년에 졸업하는 동시에 경안교회에 부임하였고 동년에 무교정교회 부임되었다가 1921년에 강경교회로 오게 되었다. 1924년에는 동막교회로 전근되었다가 1926년에 면직되었다. (이명직,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1929, 157쪽).

9) 이덕주, 『충청도 선비들의 믿음이야기』, 진흥, 2006년, 272쪽.

“강경은 우리 조선에서 포구(浦口)로는 데일로 굴지(屈指)하는 곳이라. 인구는 만여(萬餘)로 물화(物貨)의 출입이 번성하니만치 죄악도 만흔 곳이라. 一千九百十八年 가을에 정달성을 파송하여 조선집 두 간을 세로 엮어 가지고 동년十二月부터 집회를 시작하니 최초로 레배에 출석한 자는 녀학생 한 사람이더라. 전도자(傳道者)가 나가서 전도하고 북령(北町) 레배당으로 오라하면 뜻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럽치도 업시오. 그런 곳으로 누구다려 오라 하시오’ 하였더니 一千九百二十三年에 조선식(朝鮮式)으로 레배당을 새로 건축하니라”¹⁰⁾



<사진 2> 1925년 『활천』에 실린 강경교회

교회건물의 건축에는 당시 동양선교회 성서학원 초대 원장이었던 토마스¹¹⁾가 일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받아내었던 5만불의 배상금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강경 성결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에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 거부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한 까닭이다. 1924년 10월 11일 옥녀봉에 위치한 신사에 참배에 강경 성결교회의 신도였던 교사와 불참학생 대부분이 강결 성결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다. 이에 총독부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후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¹²⁾

그렇지만 1943년 5월 ‘신사참배 항거와 예수재림 교리가 일제의 국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총독부의 해산명령을 받고 성결교회는 폐쇄의 길로 접어들었고 교역자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해방 이후 교회가 다시 열리고 신자들이 돌아오면서 교세가 급속히 늘어 한국전쟁 후에는 신도들이 3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현재의 북옥리 교회로서는 교인을 수용할 수 없어 일제시대의 금융조합 건물을 구입하여 1953년 흥교리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현재 북옥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덕기 목사에 증언에 의하면 이때 매물로 나왔던 교회건물을 구입하였던 사람은 천주교 신자로 그 건물에 공장을 차리려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를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1년여를 비워두었고 이에 운반인 목사와 김현구, 김무웅씨 등이 힘을 합하여 건물을 구입하여 감리교회로 개척한 것이라고 한다.

2-2. 경북 영천 자천교회

대구와 경북 지방의 장로교회 전래는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1891년 초량교회를 출발하게 하였던 배위량 선교사¹³⁾로부터

12) 동아일보 1925년 3월 18일자 사설

13) 배위량 선교사(裨偉良, William Martyn Baird)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경상도 북부지방을 전도하기 위해 1893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서경조(徐景祚) 전도사와 함께 부산을 떠나 동래-밀양-청도-대구-상주-안동-의성-영천-경주-울산-동래를 여행하였다. (한국

10) 이명직,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역사』, 1929, 82쪽.

11) John Thomas. 그는 영국의 스타 홀(Star Hall) 선교회에서 핵심 사역자로 일하다가, 한국선교의 책임자로 일해 달라는 동양선교회의 요청을 받고, 1910년 11월에 동양선교회 최초의 제한선교사로 입국하였다. 이후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의 초대 원장으로 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착사역자를 통한 선교라는 동양선교회의 선교정책에 충실하였다. 1920년 2월 영국정부와 일본과의 사이의 외교문제로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갔다.

비롯하였다. 경북지역을 순회하는 선교여행 이후 1894년 대구를 다시 방문한 배위량은 ‘대구’는 경상도 북부지방의 중심지이며, 인구가 많고, 교통상 서울과 부산이 연결되며, 경상감영이 있는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약령시가 열리는 행정의 중심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관청의 반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1896년 대구에 선교기지를 개설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10월 서울지역 교육담당 고문으로 발령받아 12월 대구를 떠나게 되었고, 대구의 선교사역은 그의 처남이었던 안의와 선교사¹⁴⁾가 맡게 되었다.



<사진 3>. 영천 자천교회 전경

자천교회 설립자였던 권헌중 장로¹⁵⁾와 안의와 선교사의 인연은 1898년 2개월간의 전도 여행에서 시작하였다. 안의와 선교사는 영천을 거쳐 청송으로 선교여행을, 권헌중은 새로운 보급자리를 찾아 대구로 각자의 목적을 향

하여 길을 가고 있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던 이들은 영천시와 청송군의 경계를 잇는 ‘노귀재’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렇듯 안의와 선교사를 만나 예수의 복음에 관하여 들은 권헌중은 대구로 이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보현산 자락에 위치한 신촌면 자천리에 작은 초가집을 구입하여 자천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진 4>. 1950년대 자천교회의 모습

교회의 신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초가로 된 교회의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1898년 새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우선 완성한 1904년 6월 현재와 같은 목조 교회건물이 준공되었다.¹⁶⁾

3. 4칸 × 4칸 교회의 평면구성

3-1. 평면개요

(1) 복옥 감리교회

정면 4칸 × 측면 4칸의 정방형 구성을 하고 있으며, 목사의 설교를 위한 강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1칸을 뒤로 물렸다. 정면과 측면 모두 10,320mm로 이를 4등분하여 1칸의 규모를 2,580mm로 정하였다. 매 칸을 8.5척으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쪽 후면으로 돌출된 강단은 2,580mm×1,680mm의 규모로 8.5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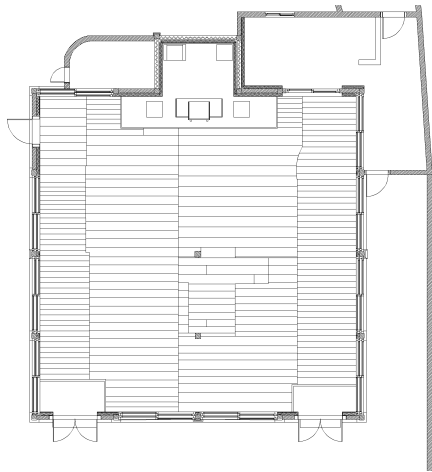
컴퓨터선교회 기독교정보검색, <http://kcm.kr> 참조)

14) 안의와(安義窩, James Edward Adams) 선교사는 미국 인디애나 출신으로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95년 5월 29일 가족들과 함께 누나가 활동하고 있던 부산에 도착하여 한국 선교를 시작했다. (한국 컴퓨터선교회 기독교정보검색, <http://kcm.kr> 참조)

15) 권헌중 장로는 경주의 작은 마을의 선비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었으나 안의와 선교사의 복음으로 이곳 자천에 교회와 서당 등을 건립하였다. 1920년 6월에는 제8회 경북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절차를 밟은 후 1922년 2월 위철지 목사의 주례로 장로 장립을 가지게 됨으로 교회 설립이후 첫 장로로 취임하였다.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16) <http://jacheon.net/> 자천교회 연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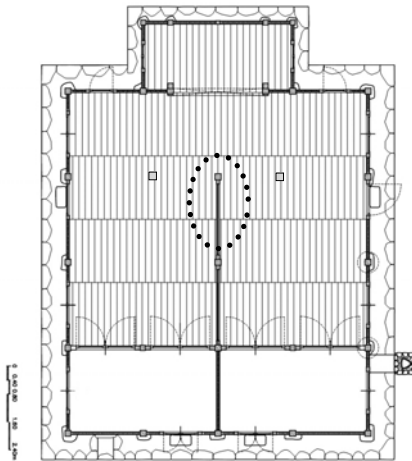
<그림 1>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 평면
×5.5척으로 계획되었다.

교회건축의 특성상 내부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트여있으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내부에 두 개의 고주만을 두었다. 이들 두 개의 기둥은 전체공간을 좌우로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좌우에서 오는 대들보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의 건립 당시에는 여기에 휘장을 걸어 남자와 여자의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1930년대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정면의 양협칸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역시 이러한 남녀구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각각 남녀공간으로의 진입을 위한 것이었다. 서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은 목회자를 위한 것으로 건립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2) 영천 자천교회

정면 4칸×측면 4칸의 정방형에 가까운 구성을 하고 있으며, 북옥 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목사의 설교를 위한 강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1칸을 뒤로 물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정면 8,520mm × 측면 9,800mm의 규모로 측면이 약간 긴 장방형이다. 따라서 정면은 매 칸이 2,130mm이고, 측면은 2,450mm로 정면은 7척으로 계획되고 측면은 8



<그림 2> 자천교회 복원현황 평면(위) 및 원형 추정 평면(아래)

척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면으로 1칸 물러난 강단은 2,725mm×1,920mm의 크기다.

2005년의 정비계획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평면으로 복원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최초의 원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현황평면의 원안에 있는 기둥과 판벽(그림 2.)의 문제이다. 실제 원안의 기둥은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100주년 기념예배 시 내부공간 사진과 예전의 내부공간 사진에서도 기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진 5> 자천교회 복원전 내부공간 모습

다. 교회의 역사에 전하는 말에도 예배당 내부에 기둥이 4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도 한다. 그렇지만 복원된 현재 건물에는 5개의 기둥이 있어 전하는 말과는 다르다.

또 한 가지, 내부공간에 온돌방 4칸을 들인 부분이다. 안의와 선교사가 예배당의 한쪽에 칸막이를 쳐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하고 있고, 예배당 바닥을 뜯어낸 결과 구들장과 아궁이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⁷⁾ 하지만 구들장과 아궁이는 새 예배당의 건축 이전에 있었던 초기 예배당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교회평면에 온돌방을 이렇게 높게 들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상 불편한 점이 있어 교회 건물의 한 칸 정도에 온돌방으로 들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정면 4칸 모두에 온돌방을 들인 것은 초기 원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형을 추정하면 그림 2.의 아래 평면이 된다. 남녀의 예배공간을 판벽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둥 2개가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고, 강단과 회중석의 적절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강단 전면의 중앙 기둥을 없애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2개의 기둥을 측면쪽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2. 주출입구의 설치

일반적인 서구 바실리카 형식의 교회건물은 평면의 형태가 장방형으로 길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구성된 장축방향의 한쪽에는 강단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전실을 포함한 주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우리나라에 한옥 형식으로 건축되었던 초기 장방형 평면의 성당과 교회에 대부분 적용되었다.¹⁸⁾

이러한 출입방식은 장변의 직각방향에 주출입구를 설치하는 전통적인 진출입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출입방식에 익숙해있던 당시 교인들에게 어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에 북옥리 감리교회에서는 주출입구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설치하였다. 즉, 사진 6.에서 보듯이 팔각지붕의 내림마루 지붕면 양 협칸에 남녀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내부공간의 강단은 지붕 용마루와는 직각방향에 설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하였다. 정방형 평면으로서 장축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자천교회의 경우도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북옥 감리교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재의 출입구는 1948년경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으로 우진각 지붕의 내림마루 지붕면 전후에 남녀 구분하여 위치하고 있다.¹⁹⁾

18) 강화 성공회성당(사적 242호)을 비롯한 초기의 성공회성당들과 강화 서도 중앙교회(문화재자료 14호) 등이 대표적이다.

19) 강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좌우 측면에 출입문이 설치된 형식으로 1895년 전북 완주에 건축되었던 퇴계성당과 유사하다. 건축 초기에는 남녀 출입구를 구분하

17) 국민일보 2006년 4월 4일, 엄기영기자



<사진 6> 북옥 감리교회 정면의 주출입구



<사진 7> 영천 자천교회 출입구(1904~1948)

이렇게 함으로써 강단과 출입구는 직각을 이루고, 남녀의 출입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48년경 교세가 커지고 신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출입구를 강단의 반대편으로 옮기고 남녀구별을 없앤다고 한다.²⁰⁾



<사진 8> 영천 자천교회 출입구 추정위치(1948~2005)

3-3. 강단 및 회중석의 구성

북옥 감리교회와 영천 자천교회의 강단 구성방식은 후면 4칸의 중앙에 1칸 규모 정도의 강단을 뒤로 물려 배치한 것으로 동일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앙에 위치한 기둥을 생략

기 위하여 남쪽의 출입문은 남자들이 이용하고, 여자는 측면의 마루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호남문화재연구원, 『완주 되재성당』, 2008, 25쪽) 1954년 건축된 공소건물에는 좌우측면과 정면 모두에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20) <http://www.jacheon.net/> 참조.

해야 하는 것인데, 구조방식의 차이를 보인다.

북옥 감리교회에서는 후면의 2번째 및 3번째 칸의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처마도리를 대치한 굵은 보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원래 기둥이 있어 대들보와 맞물려야 할 위치에 대들보를 얹음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하였다.(사진 9)



<사진 9> 북옥 감리교회 강단 구성

한편, 자천교회의 경우에는 건물 후면 중앙에 있어야 할 기둥을 생략하기 위하여 아치구조를 활용하였다. 아치의 상단 정점에서 두 개의 처마도리를 잇고, 그 위에 직각방향으로 보를 걸침으로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강단의 높이는 회중석에 비하여 약 150mm 정도 높게 처리하고 전면으로 돌출시켜 설교자의 공간을 확보하였다.(사진 10)



<사진 10> 자천교회 강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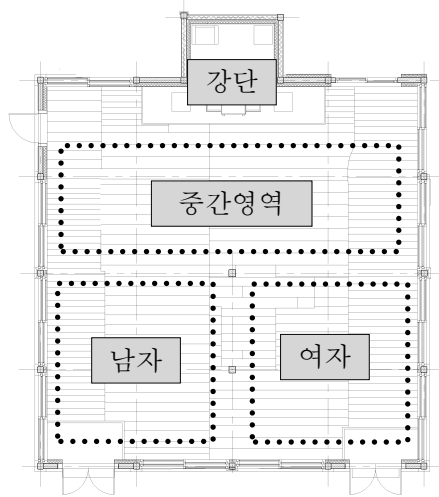
회중석의 경우 출입구의 위치에 관계없이 두 교회 모두 내부공간 전체 16칸(강단 1칸 제외)을 전후 8칸씩으로 크게 나누고, 강단에 면한 전면 8칸은 강단과 회중석의 중간영역으로 후면 8칸은 회중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8칸의 회중석은 중앙에 위치한 두 개의 기둥을 기준으로 4칸씩 구분하여 남녀 신도석으로 삼았다. 이때 두 기둥에는 휘장을 걸거나(북옥 감리교회) 판벽을 설치하여(자천교회)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회중석의 남녀 영역구분은 강단에서 보았을 때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라는 전통적인 방위개념과는 다르게 반영된 것이 특이라고 할 수 있다. 진입방향에서의 시선차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물리적 영역구분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섞여 앉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3-4. 4칸×4칸 교회의 평면구성 특성

전통건축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4칸×4칸 칸잡이를 평면에 활용한 북옥 감리교회와 자천교회는 새로운 기능, 즉 교회라는 공간과 전통건축기법이 접하여 만든 토착적 공간창출의 하나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4칸 규모의 공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기존의 3랑식 공간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퇴칸과 기둥열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내부의 신랑(Nave)과 측랑(Aisle)을 구분하는 기둥열은 교회건축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설교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불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4칸 칸잡이 평면에서는 이러한 기둥열을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설교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 4칸×4칸 교회의 공간구성

또한, 회중석의 남녀 영역구분에도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즉, ‘ㄱ’형 교회처럼 채(棟)로 구분하지 않고도 한 공간에 차폐물을 두고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조선시대 유교적 사고에 젖어있던 당시 신도들을 유인할 수 있었다.

한편, 회중석과 강단의 공간구성에서 두 교회는 거의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 영역의 구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옥 감리교회가 기둥 없이 큰 공간을 확보한 것에 반하여, 자천교회는 중간영역에도 기둥을 배치하여 보다 집중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4. 4칸 × 4칸 교회의 구조형식

4-1. 구조개요

(1)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

북옥 감리교회의 기본적인 구조는 한식 전통목구조이며,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민도리집계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리를 받치는 장여와 소로 등이 없이 가구구성을 하고 있다. 다만 종도리의 경우에는 도리말에 장여가 있고, 또 이들 장여를 뜬 창방위의 소로가 받치고 있어 장식적 효과를 보여준다.

지붕가구의 구성상 9량 가구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면과 좌우측면의 처마는 겹처마로 후면처마는 홑처마로 되어 있다. 귀부분의 경우에는 선자서까래 형식이 아니라 말굽서까래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2) 영천 자천교회

영천 자천교회의 구조 역시 북옥 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전통 한식목구조이고, 그 양식은 민도리집 계통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중도리를 사용되지 않고 대공을 세운 위에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자와 같은 사모지붕에 사용되는 덕보를 걸어 모임지붕의 형식을 취한 점이다. 정면과 측면의 규모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가구 구성상 5량 가구로 이루어져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처마는 홑처마로 되어 있다. 처마의 양곡과 안허리가 거의 없어 수평적인 느낌이 강하다. 따라서 일체 강점기에 지붕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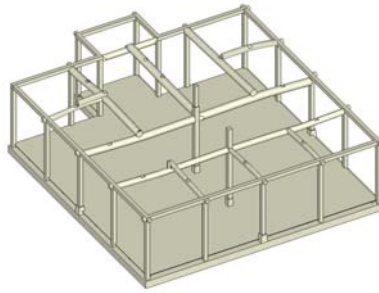
4-2. 지붕가구 구성

(1)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

① 대들보 및 퇴량

회중석에 위치한 고주에 동서방향의 대들보를 끼고 그 위에 남북방향의 들보를 걸쳤다. 강단과 회중석 사이의 중간영역에 기둥을 생략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사용되는 대들보는 원형 부재를 꺾질을 벗긴 정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부재의 강직함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전면 및 좌우측 퇴칸에는 하중도리를 지지하기 위한 퇴량을 들보위에 걸쳤다. 총량은 처마도리와 대들보의 높이차를 고려하여 만곡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부재 역시 대들보와 마찬가지로 자연부재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둥에 끼이는 부분을 대들보에 걸치는 부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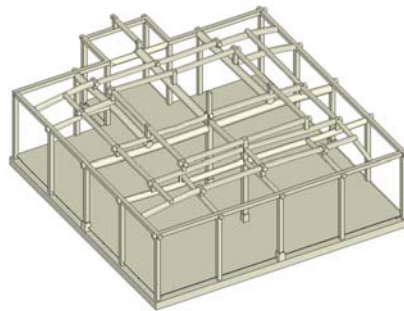
<그림 4> 대들보 퇴량
조금씩 두텁게 하였다.

② 하중도리 및 중도리

4칸×4칸의 구조틀(처마도리 기준)을 3칸×3칸의 구조틀(하중도리)을 거쳐 2칸×2칸의 지붕가구로(중도리) 변환하는 과정이다.

하중도리는 건물의 4면 협칸을 이분하는 위치에 설정되며, 이 위치는 팔각지붕의 박공면이 설치되는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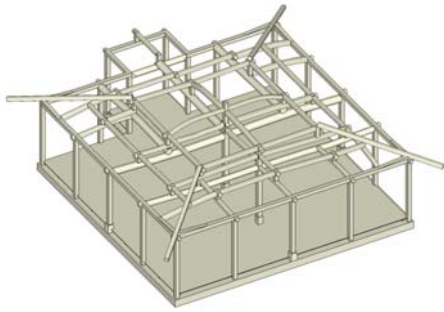
하중도리가 설치되는 동일한 레벨에서 내부의 고주에는 하중도리에서부터 연결되는 중보가 다시 끼이고 고주와 고주 사이도 중보가 연결됨으로써 서로를 지지하였다. 밭'田'자 형식의 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후 중보 위에 동자주가 놓이고 중도리가 설치되었다.



<그림 5> 하중도리 및 중도리

③ 추녀의 설치

건물 4면의 중앙 중도리 받침 동자주로부터 중앙고주에 끼이는 총량 형상의 부재를 다시 보냄으로써 구조적으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중도리의 네 모서리로부터 처마도리 네 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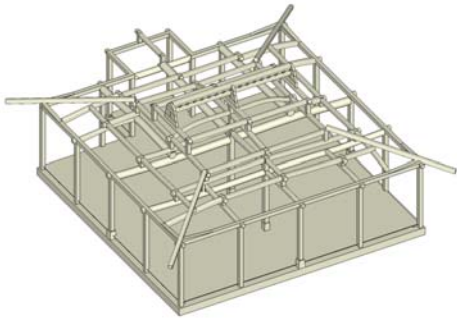
<그림 6> 추녀의 설치

로 추녀를 걸침으로써 팔작지붕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였다.

④ 상중도리 및 종보/서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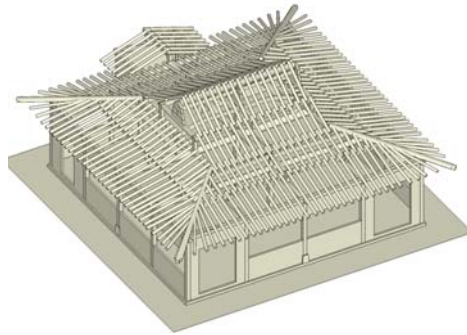
4칸×4칸의 정방형 지붕틀에서 중도리에 이르러 2칸×2칸으로 그 규모를 줄이고, 팔작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2칸×1칸의 장방형 지붕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서방향의 중도리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남북방향의 종보를 설치하고 중앙부의 고주위에 남북방향의 종보를 가로지름으로써 정면이 남향이 되는 팔작지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까래는 중도리와 상중도리를 연결하는 단연과 상중도리와 중도리를 연결하는 중연 및



<그림 7> 상중도리 및 종보/서까래

중도리와 처마도리를 연결하는 장연으로 삼분되어 있다. 서까래의 크기는 건물의 규모에 비하여 조금 가는 편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성글게 배치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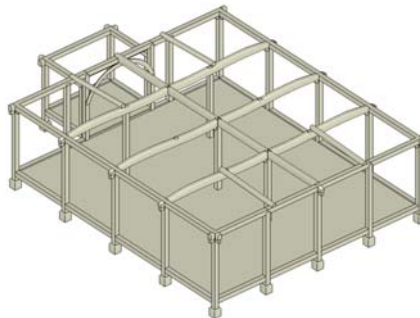


<그림 8> 지붕 완성

(2) 영천 자천교회

① 대들보 및 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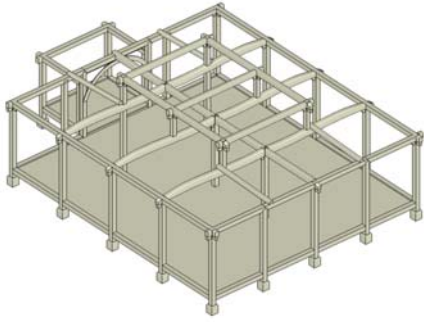
남북방향이 약간 긴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된 건물이므로 동서방향으로 대들보를 걸치되 4칸 전체를 가로지르지 않고 건물내부에 4개의 기둥을 설치하였다. 전면의 회중석에 위치한 중앙 2개의 기둥에 대들보를 맞보 형식으로 끼우고, 강단과 회중석 사이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2개의 기둥에는 대들보의 중앙이 걸치도록 하여 내민보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간영역의 중앙열에 기둥이 위치하여 시선을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건물 전후의 협칸에는 남북방향으로 대들보와 동일한 높이에 퇴량을 설치하였다.



<그림 9> 대들보 및 퇴량

② 중도리와 종보

대들보를 이분하는 위치에 중도리를 지지하기 위한 동자주를 세우고, 중도리를 결합하였다. 이때 일부 구간에는 동자주를 보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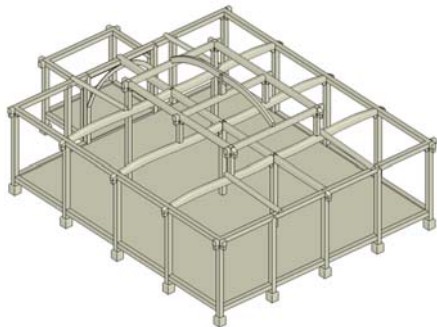


<그림 10> 중도리와 종보

위하여 ‘人’자형 대공과 유사한 부재로 동자주를 지지하였다. 중도리의 위치설정은 4분변작에 해당하는 정도로 하였다. 또한 중도리의 동서방향으로는 종보를 건너질러 날 ‘日’자 의 지붕틀을 구성하였다.

③ 대공 및 덕보

교회의 지붕을 비록 우진각 형식으로 처리하였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용마루가 짧게 되어 사모지붕에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지붕 구조를 형성하는 구조체 역시 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날 ‘日’자 형 중간에 위치한 종보에만 대공을 세우고, 좌우의 종보에는 대공을 세우지 않고 아치형의 만곡재 두 개를 중앙의 대공에서 교차시키는 덕보를 사용하였다.



<그림 11> 대공 및 덕보

덕보는 대개 1칸 정도의 소규모 팔작지붕이나 사모지붕에 주로 사용되는 부재로 4칸 규모의 대형건물에 사용된 예는 많지 않다.



<사진 11> 덕보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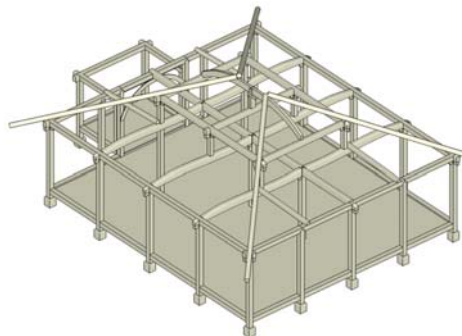
평면이 정방형에 가까운 까닭에 우진각 지붕의 용마루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고, 우진각 지붕의 단변방향에 주출입구를 설치하는 어색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④ 추녀 및 서까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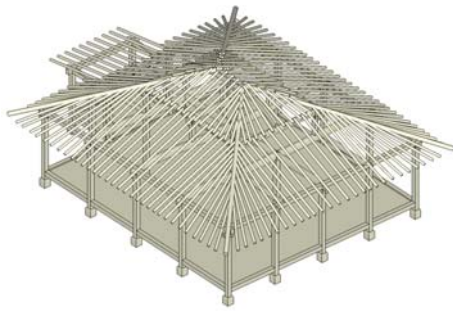
일반적인 우진각 지붕에서의 추녀가 중도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처마도리에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본 건물에서는 덕보의 상부에서 중도리를 거쳐 처마도리까지 이어져 있다.

다만, 처마도리 외부로 내민 추녀의 길이가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짧은 까닭에 전체적으로 처마가 짧게 구성되었다.

서까래는 중도리를 경계로 장연과 단연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연의 경우 건물의 귀부분에 추녀에 뿌리를 두는 말굽서까래 형식으로 처리하고, 단연의 경우도 장연과 마찬가지로 말굽서까래 형식으로 처리한 것은 본 건물에서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추녀 및 서까래



<그림 13> 지붕 완성

4-3. 4칸×4칸 교회의 구조적 특성

전통건축에서는 흔히 않는 4칸 규모의 칸 잡이 교회에서 4칸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들보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두 교회건물에서는 이미 살펴보았던 평면구성에서의 장점을 살리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중석의 경우 공통적으로 4칸의 중심열에 기둥을 배치하였다. 그렇지만 강단과 회중석 사이의 중간영역은 강단에서의 설교자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거리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열에 기둥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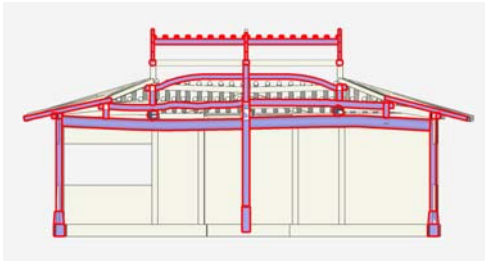
두 교회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중간영역의 무주(無柱)공간을 확보하였다.

북옥 감리교회의 경우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회중석 부분에서는 중앙열에 고주를 세우고 그에 대들보를 가로질러 끼운 반면, 중간영역에서는 중앙열 고주에 끼인 대들보의 직각방향으로 또 다른 보를 걸쳐 하부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단 전면의 중간영역에 기둥을 모두 생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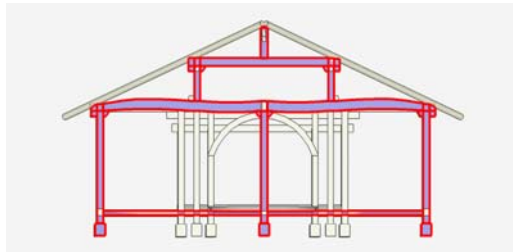
한편, 자천교회의 경우 5량가구로 구성된 회중석부분은 중앙열 기둥에 보가 끼이고 그 보의 중앙에 동자주를 얹어 가구를 구성한 반면, 중간영역은 양 측면으로부터 1/4 지점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는 내민보(캔틸레버)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중앙열 기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맺는말

본 연구는 20세기초 건축된 4칸 × 4칸 규모의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와 영천 자천교회의 평면구성과 구조형식에 관한 것이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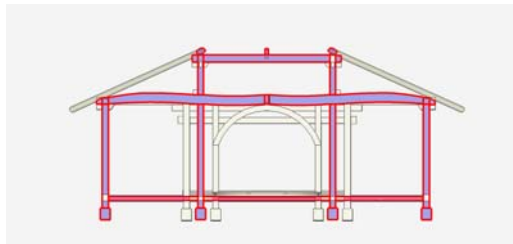
북옥 감리교회 내부 회중석부분 구조형식



자천교회 내부 회중석부분 구조형식



북옥 감리교회 내부 중간영역 구조형식



자천교회 내부 중간영역 구조형식

<그림 4> 북옥 감리교회 및 영천 자천교회 회중석과 중간영역 구조형식의 비교

적으로는 전통건축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새로운 용도인 교회의 기능을 전통 한식구조에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는가를 평면과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4칸×4칸 교회건축의 평면구성

평면구성에서 두 건물은 동일한 방식을 취하였다. 전통건축에서는 흔치 않던 4칸×4칸 공간을 구성하되 설교자를 위한 강단은 건물 외부로 1칸 정도 돌출시켜 독립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16칸의 내부공간 중 강단 반대쪽 8칸은 회중석으로 구성하되, 각각 4칸으로 또 다시 구분하여 남녀 공간을 구획하였다. 이때 공간의 구획은 중앙열에 세운 2개의 기둥에 설치한 휘장이나 판벽을 이용하였다. 강단과 회중석 사이의 중간영역은 설교자의 시선집중과 어느 정도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중앙의 기둥열을 없애고 무주공간으로 처리하거나 기둥을 양 측면의 1/4 지점에 설치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지붕형식과 내부공간 구성

4칸×4칸 교회건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붕형식을 들 수 있다. 전통 한식건물에서 규모가 작은 정방형 건물의 지붕은 모임지붕 형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북옥 감리교회는 팔작지붕이고, 영천 자천교회는 우진각지붕으로서 기존의 정자 형식의 규모가 작은 건물과는 다르다. 모임지붕의 정자건물과는 달리 내부공간의 활용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교회라는 특성상 강단과 출입구를 잇는 장축방향의 설정이 필요한데, 4칸×4칸의 정방형 건물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모임지붕보다는 팔작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 적합한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두 교회가 갖는 또다른 특징은 당시 대부분의 한옥형식 교회나 성당에서의 진입이 장축방향을 따라 합각부분에 주출입구가 설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전통적인 진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옥 감리교회의 경우 주출입구가 팔작지붕의 내림마루면에 설치되어 전통적인 진입방식을 고수함과 동시에, 강단은 출입구의 반대편에 설치함으로써 팔작지붕의 용마루와 직교하고 있다. 전통적인 건축형식과 서양에서의 새로운 기능을 4칸×4칸의 전통공간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4칸×4칸 교회건축의 구조형식

9량 구조의 북옥 감리교회의 경우 처마도리에서 중도리에 이르는 지붕틀은 정방형을 이루고 중도리에서 중도리에 이르는 지붕틀은 장방형을 이루는 지붕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때 건물 전체를 가로지르는 보를 설치할 수 없는 까닭에 건물내부에 고주를 세움으로써 구조를 해결하였다.

단계적으로 정방형(4칸×4칸)의 처마도리와 내부고주에 연결된 종횡의 들보를 지붕의 기본틀로 사용한 후, 그 위로 정방형의 하중도리(3칸×3칸) 틀과 중도리(2칸×2칸) 틀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정방형 지붕틀은 상중도리에 이르러 2칸×1칸의 장방형 틀로 바뀌어 팔작지붕을 구성하였다.

반면, 5량 구조이면서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 평면의 영천 자천교회의 경우에는 내부에 평주를 세워 맞보형식 혹은 내민보 형식의 들보를 걸어 지붕의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중도리 높이에서 날 '日'자로 종보를 걸친 후 중앙의 보에만 대공을 세우고, 나머지 종보에서는 덕보를 호형으로 만들어 대공에서 끼움으로써 추녀를 그 위에 놓아 사모지붕에 가까운 우진각 지붕을 구성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구조형식은 평면구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강단과 회중석 사이의 중간영역 중앙에 기둥을 생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 장인들인 목수들의 창작의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한식 목구조건물에 새로운 유형의 교회기능을 담는 것은 20세기초 근대시기 전통기능인이었던 목수들과 한인 목사 혹은 선교사들에게 큰 숙제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성공회 성당 등과 같은 서양의 바실리카 형식의 건물이 건축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ㄱ’자형 평면의 교회건물도 건축되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과 같이 4칸×4칸 형식의 교회도 건축되었다. 교회의 기능과 남녀의 영역을 구획하여 하는 현실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더하여 건축물로서의 조형성을 고려하여 팔각지붕 혹은 우진각지붕으로 마감한 것은 당시 건축에 참여하였던 장인과 목사 혹은 선교사들의 조형의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전하는 전환기의 이러한 조형의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송현강, 『대전충남지역회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2. 이명직,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경성성결교회이사회, 1929,
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0
4. 김성호, 『종교건축기행34』, W미디어,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통권60호 2008년 10월

- 2007
5. 이덕주, 『충청도 선비들의 믿음이야기』, 도서출판진흥, 2006
6.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7. 장기인, 『목조』, 보성문화사, 1988
8. 장기인, 『건축구조학』, 보성각, 2002
9.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 기법』, 발언, 1995
10. 호남문화재연구원, 『완주 퇴계성당』, 2008
11. 문화재청, 「강경 북옥 감리교회」, 2007
12. 문화재청,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2006
13. 문화재청, 「서대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2005
14. 충청남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 2004
15. 김기주, “강경 북옥리 감리교회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2008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8. 5
16. 이상희, “충남지역의 근대교회건축에 나타나는 건축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목원대 석논, 2002
17. 안운형, “한국 개화기의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논, 2006
18. 홍순명 외,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 1991.2
19. 도선봉 외, ‘개화기 한국 개신교회 건축의 형성에 대한 연구’,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16권1호, 1997.6
20. 홍승재 외,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7권4호, 1998.12
2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 ‘교단 순교지 안내’, 2007

A Study on the Plan and Structural System of 4 kan(間) by 4 kan(間) Church in the Early 20th Century

Kim, Ki joo

(Associate Prof.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plan and structural system of 4 kan(間) by 4 kan(間) square church built in early 20th century. At that time, three kinds of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church had been buil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ransitional era : Basilica style such as Ganghwa Anglican Church, 'ㄱ' shaped style such as Keumsan Church and 4×4 Square style such as Bukok Church and Jacheon Church that are concerned in this study. Traditional plans and structural system were mixed with new religious function and transformed into korean peculiar style. 4×4 Square style is a residual product in that process. Despite of it, little concerns on it till no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1. The plan of these 4×4 square churches is divided into three areas : cathedra(1×1), attendance(4×2), and intermediation(4×2). The location of cathedra is commonly the opposition part of main gate and projected out of the building. Attendance area was also divided into two, man and woman, because of keeping a distance with each other.

2. The structural system of these 4×4 square churches are somewhat different because of their size and roof style. In the case of Bukok church, 4×4 square fall off 3×3 and 2×2 gradually and turn into paljak(八作) roof, which enable us to get in traditional entering methods. On the contrary, Jacheon church use hipped roof but almost alike pyramidal roof, which could make us not to recognize entering in the aspect of gable part.

Keywords : early 20th century, 4kan(間)×4kan(間), square church, plan, structural system, roof style
